

# 책은 내 은 명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현관 입구부터 양쪽으로 즐비하게 서 있는 책, 작은 소파를 제외하고는 탁자 위는 물론이고 거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책, 심지어 모든 벽면이 이중 책장으로 둘러싸인 침실까지... '책으로 만들어진 집이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만큼 책으로 압도당하는 그 곳에 장서가 김삼웅 선생이 산다.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는 연모의  
정이 있듯이 저는 책을 좋아하는  
연모의 정이 있나봐요.  
지금도 어찌다가 주머니에 돈이  
5천 원 밖에 없는데 밥과  
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책을 사요.



■ 역시 '2011년 모범 장서가상'을 수상하신 분답게 온 집안이 책으로 가득합니다.

그런가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책이 약 3만 권 정도 되니까 집 안에 다른 물건들이 들어오는 건 좀 어려울 정도가 됐네요.

■ 3만 권이 넘는 책을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하신 건가요?

어느 때부터라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소년 때 부터였던 거 같아요. 그 때부터 책을 좋아했으니까. 당시는 책이 귀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용돈만 생기면 책을 사서 읽고는 아까워서 버 릴 수가 없었지요. 지금도 일주일에 2,3일은 서점에 나가서 책을 사 고 있구요.

■ 책을 정말 사랑하시나봅니다.

음... 아마도 제가 책을 좋아하는 것은 운명인 거 같기도 해요. 사람이 이성을 좋아하는 연모의 정이 있듯이 저는 책을 좋아하는 연 모의 정이 있나봐요. 지금도 어찌다가 주머니에 돈이 5천 원 밖에 없 는데 밥과 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책을 사요. 평생 책을 벗 삼아, 연인 삼아 그래요.

■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물건을 수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책' 을 모으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지가 발달되고 학문이나 교양이 발달하려면 책을 통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영상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활자매체밖에 없었죠. 결 국 책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알고, 식견을 쌓으니까 책에 대한 애정이 돈독해지고 도저히 버릴 수 없어 계속 가지고 있나봐요.



저는 소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사죠.

아주 오래전부터 평소 읽고 싶었다거나 집필하는데 자료가 될 만한 책을 사서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책일지라도 저에게는 한 권 한 권이 모두 소중한 것들이죠.

■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것이 책인데요, 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책을 소장하시는지요.**

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장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사죠. 아주 오래전부터 평소 읽고 싶었다거나 집필하는데 자료가 될 만한 책을 사서 읽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책일지라도 저에게는 한 권 한 권이 모두 소중한 것들이죠.

■ **책을 워낙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책이라는 게 관리와 보관이 수월치 않아서 가족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집사람은 처음부터 제가 책이 많은 걸 알고 결혼했어요.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몇천 권 이상의 책이 있었으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책이 많은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미 익숙해졌다고나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아진 것은 아니니까요.

■ **선생님께서 소장하신 책 중에 가장 아끼시는 책은 어떤 것인가요?**

정인보 선생님이 쓰신 <조선사>, 고유섭 선생님의 <고려청자>, 박열 선생님이 쓴 <인간 박열>, <조선민주사상사>, 박

열 선생님이 옥중에서 쓰신 친필본 등등이 제가 좀 더 아끼는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전국 방방곡곡, 또 일본과 중국 등을 다니며 보물을 찾듯 직접 찾아낸 것들이라 더 애착이 갑니다.

■ **그 중에서 유독 애착이 가는 책 한권만 고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좀 되긴 하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쓴 <여유당전서>를 꼽을 거 같아요. 활자본으로는 처음 만든 책인데, 정인보 선생님이 자료 수집을 해서 편찬을 한 것이예요. 70년대에 우연찮게 일본인 손에 넘어가기 직전에 구입했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헌책방에 갔는데, 주인이 일본인과 그 책을 두고 가격 흥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자료를 일본에 넘기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서점주인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저에게 팔아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됐어요.

■ **이렇게 집에 책이 많으니까 도서관에 가실 일은 없으시겠어요.**

그런가요? 예전 70년대에 집필할 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많이 다녔어요. 당시 자료수집하려면 꼭 가야하는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이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아주 옛날일이네요.



■ **혹시 그동안 모으신 책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세우거나  
기증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도 있고,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없으면 허전해서 못 살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평생을 함께했기 때문에 쉽게 못 보내죠. 보기에 는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지만, 제 마음과 노력과 정성, 애정이 이 안에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 **책을 모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집필도 많이 하신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 친일파,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썼고 최근에는 주로 평전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30권정도 집필했을 겁니다.

■ **그렇게 지속적으로 집필하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 같은  
데요.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즐기찬 의지라고나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질지 몰라도 지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 욕망은 더 강해진 거 같아요. 또 젊었을 때는 사유의 세계가 한정적인데, 그 동안 다양한 책을 읽다보니 지식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져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책에 대해 고정적으로 기고를 하고 있고, 평전도 지속적으로 집필하고 있어요.

■ **집필 외에 다른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게 하시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신홍무관학교기념사업회 일이에요. 1910년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했을 때, 조선의 몇몇 명문가에서 재산을 전부 팔아서 만주에 신홍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거기서 배출한 독립운동가들이 3,500여 명이에요. 벽도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을 주관했던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교육받은 분

들이죠. 그런데 이런 훌륭한 학교가 역사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이 100주년 기념이라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현장 답사도 가고 학술 세미나도 하고 방송·강연도 했어요. 그 뒤에 그대로 끝내지 않고 저희가 자비로 기념재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신홍무관학교가 뭔지도 모르다가 6박7일 일정을 끝내고 돌아올 때는 애국자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땐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래서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만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죠. 백범 선생님은 어려웠던 시절에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이예요. 그리고 다른 자서전들은 자기를 미화시키기에 바쁘는데, 선생님은 아주 진솔하게 쓰셨죠. 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

글. 김정선 객원 기자